

작년에, 네가 용을 쓰고, 탄광 밋히드러가, 규아를 차졌거니와, 규아 죽기도 이득기  
로 그런 것이니, 이 두어가지, 경험하여 초흔지라, 이럼으로 몇히틀, 궁리하야, 이  
대포를 신발명하얏노라, 네야모리, 지력이 총민흔들, 탄산을 가져, 삼시간에, 일  
도부를 와스바다가, 퇴게흔줄은 몰나실나  
그러하나, 내마음에, 오히려 미흡흔 것이, 이 탄환 싸질적에, 소리가 몹시나는게,  
즈미엿겟노라

엇더케하면, 아무소리업시, 달이나 밝고, 서리찬밤에, 슈만가호, 십만인구와, 바  
소개뿔, 짜지라도, 무슨사뵈을, 모르고, 밧춧듯일시에, 어름던디 눈공게, 영장하  
얏시면, 그안니 세계에 장관이며, 남아의 상쾌흔일이라, 이문데로, 궁리하노라고  
요스이즘을 못즈나, 대강점착이나서나, 몇철더성각, 하야보겟다

(약한) 참장하시오, 이런스업은, 천고만고에업는스업이요, 그러는, 나는종시의  
단이, 업지못하오

(인비) 허사, 무슨의단이잇나

(약한) 이 탄환을, 속이비게하야, 유동탄산을너으면, 탄환이 무게가업서, 앓가말  
티로삼십영리를, 갈가십지못하오

(인비) 그난즈내말이, 피이치아니하겟네

삼십영리가 깨는법이, 쓰로잇스니, 즈니가들으면, 짐작하리, 더그중큰탄환속  
에, 즈근탄환을, 슈십층으로겹사이너코, 썩딕이에는팜싸약을제오면, 와스가화약  
의, 힘부리는티로, 멀리가고, 슈십탄환이, 일제히터지며, 좌충우돌흔면, 일도부가  
두레짜지고, 즈키들바다이, 될테일세

아모려나, 내가 시험을 못하얏기에, 불일내에, 시험하러이니, 그썩즈내와 시험장에  
나가서, 피흘너니가되고, 썩모와산이되는걸보면, 그제야, 즈니가, 내말이, 을흔줄  
알니라

하는싯해, 약한이, 어린아히, 응석하듯, 썩차가며  
그러면, 언의늘, 응, 어티다가, 응, 어티다가, 응

하면서말을, 겹흐하니, 인비는, 썩점잔아젓서, 눈술을, 썩푸리고, 핀준을썩며  
그것은, 알아무엇을고

하다가약한의, 무료하잇는것을, 흔참보더니  
네, 정알고져하느냐

더그, 더문밧게, 더산넘어, 장슈춘이라하는마을이, 예셔썩삼십영리나라, 오날  
초닷서니, 인제흔썩일지나, 열스흔날정발중에, 이탄환이, 압산을나라넘어, 장  
슈춘복판에, 썩러지면, 심여만, 라전인춘이, 함몰하디

향면서 소리를 지르고, 억지를, 옷씩 옷씩 하며  
허허, 네일이 만학스인비말, 할마디, 쑥쑥러지면, 텨하장스라파륵은, 다무엇시  
나

향는서실에, 약한이, 눈이 멀등멀등, 이마에서, 벼락이 뇌리는듯하고, 전신이, 어름  
썩, 갓하여, 소름이 죽々세치고, 허가긋어, 아모말도, 못향는지라  
인비가, 약한의, 이러흔거등을, 슬히지못하고, 또허허우시며

나는, 장슈촌유인과, 일절비치향야, 저는, 인명을 장슈향라향교, 나는인명을, 축  
너라향니, 이런반대의, 범위는, 세계에업지, 세계에업지  
약한이, 머리를숙이고, 정신을추려향는말이

그러면, 장슈촌인민이군의게, 무삼원슈며, 무삼죄를짓기에, 군이진멸향야, 종  
즈를업서향라향오  
향는말을, 치맛치지못향야인비가우지르며

소위, 선악스정이라함은, 피츠의덕거리, 향는말이니, 착향다향는것은, 더것이, 이  
보다나타는것이요, 악향다향는것은, 이게더보다못향다향는것이니, 우리가, 장슈  
촌을멸망향라는것을, 남들이, 악향다독향다할지라도, 이는불과사회상에, 조고만  
인정으로, 평론향는것이라

런디의, 대법공심을, 말향즈면, 성존경향는세계에, 우등인종이, 악이고, 열등인  
종은패향며, 약향즈가, 고기되고, 강향즈가먹으며, 묵어온물건은, 짐기고, 거벼  
온물건은, 쓰는것이, 런디간에, 썩々흔리차라, 이런고로, 세계에, 세력잇는사람  
이, 런디의, 대법공심을승순향야, 대표즈가되거늘, 더좌선은, 이대법공심을어  
의고, 나전의렬등인종을, 번성향라향니, 이는, 하늘을거시르느니라, 역런즈  
는망이라향는말을, 그대, 못드러느나, 숭향다, 장슈촌에나전인종, 십만구가, 눈  
흔번잠즈거릴스이에, 세상을모를줄엇지삼이나, 싸어시라

향는것을, 보고약한이, 말이막혀, 못흔거손아니요, 속중은, 만일또말을더박쳐향  
다가는, 인비가, 급향성결에, 무슴독을부릴는지도, 모로겟고, 또장슈촌을, 일해도  
기다리지안코, 당장거조를, 향는디경이면, 밋쳐쥬쥬향야, 장슈촌에의별도, 못  
향고폭망할지라, 이럼으로약한이, 듯기만향고, 아모말업시, 쥬쥬으로, 도라왔더  
라

인비약한을, 다리고도라와, 의즈에안져, 텨의방을을, 혼들더니, 하인이드러오거  
늘야이밀과디의두사륵을, 청향야, 오게향여라

향고담비를, 썩々썩썩, 안졌는모향이, 괴상향거늘, 약한이, 첫눈질향야보다가, 비  
위를조곰맛쥬어, 볼가향고, 의즈를, 갓가히닥어노코, 종용이향는말이

그런즉, 각하가, 이 일을 작히, 비밀하게 할 것이요  
인비가, 빙긋빙긋, 우시며, 썩더러 보고

허, 총명하거니, 우리 약한이야, 비밀하고, 또 비밀하기를, 알으게나  
그러나, 절동한 것이, 즈네 갓흔 청년에, 지력으로, 세상을 하직하게 하니, 그아니  
절동한가

약한이, 의즈의셔, 니러느라 할거늘, 인비 또 붓드러, 안치고

즈네, 놀나지 말쇼, 내실정으로, 말함세

내가, 이 일을 비밀하게 하기에, 속담에 말로, 부시령을 두면, 고름이 난다는 짝으로,  
늑일을, 안자는, 미리 업셔야, 걱정이 안되는고로, 너가 결심할야 노라

할면셔 방울을, 쏘흔드니, 아이 밀디의 두놈이, 발서문에, 드러서느니라

인비가 약한을, 도라보며

즈네가, 나의 비밀스를, 알고져 하기의, 내가 다 일너 주었시니, 즈네는 이 세상을 썩  
나 너닐를루 설치 말면, 쟁겜니

약한이, 머리를 꼭 속이고, 묵묵히 안젓실뿐이라

(인비) 너의, 총명지력을, 엇지이 중치 아니리오 마는, 내가, 렬의를 밧아, 대스를  
하기에, 구々훈 사람의, 목숨을 앗길 슈업도다, 이제, 전담으로 네게 고할거니

와, 전일네 벼슬단이던, 손래도, 나의 비밀스를 알았기에, 죽이고, 거지 꼭 밧약에  
죽었다 할야 하니, 내 비밀스를 알면, 곧 죽이는 것은 인비의 렬령이라, 틀령을 어  
지 못하니, 네 생각하여 보아라

약한이, 인비의, 신식을 보니, 구설로 닳뚜지 못하겠고, 비러셔, 면치 못할지라, 이에  
머리를 들고

그러면, 언의셔가, 나의 세상하질 할셔이며, 무슨 법으로 나의, 목숨을 살으라 할냐  
(인비) 다른 죄인 갓흐면, 죽을셔에, 무한고초를, 견게 할지 마는, 너는 호걸의 사람

이라, 내가 참혹할 때 하지, 안으리니, 슈일동안언의 밤이고, 네가 즈다가, 영々셔  
지 못하게 할 것이니, 그셔가, 너 세상하 죽는 줄, 알어라

말을 맞치며, 아이 밀디의 두놈을, 향하야, 턱짓을 하니, 두놈이, 달녀 들며, 덜미치고,  
먹슬 드러 깨씩 지 갓흔 방에, 가도더라

데구장, 녀아화女兒花의 신과 혼공효

약한이, 갓치여, 밤이 깊도록, 잠을 쓰지 못하고, 별 생각이다는다

인비의 말이, 자다가 영々셔 지 못하고, 죽어도, 샅을 모른다니, 오날 밤 언의셔가,  
아조 세 상을 영결하느니, 알 슈업시니, 나의 혼 몸 죽기는, 원동치 안커니와, 장수춘,  
십여 만 인종이, 인비 혼놈의 손에, 업셔 절성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니, 엇

지증이 오리오, 구월열스흔늘이, 시방일해를, 겨하얏서나, 무손슈로저를, 방히  
 향며, 무손슈로, 저대포외추밀각을, 업시향고, 초박그로도망향야, 혼드름에장  
 슈촌을뛰여갈고, 입을악물고, 두주먹을불신쥐고, 너닷고저향나, 더두놈이, 건  
 장향야, 엄밀향게지히고, 섰서니, 틈을탈슈업고, 또인비즈랑향되, 혼탄한으로,  
 전도부를친다향며, 삼십영리가난속력파, 이십비되는폭력이있다향니, 내제말  
 를듯고저, 향였저마는, 저도미승불산술추리에정민향니, 그릇홀리업고, 후단환  
 이밍널향야, 포신이파상향기니, 바랄가향되, 원리단련향기를견고허향야, 그럴  
 리치만무향니, 숨흐다, 장슈촌아여, 뉘능히독화를페케할고

이렇듯천스만렘으로, 곤장이타는듯향다가, 동방이식는지라, 잊흔닐약한이, 방속  
 에서도라다니드가, 심중에울적향여, 손으로문을미러보니, 다형히반만답치엿거  
 늘, 몸을부비티고, 나와압뜰에거니다가, 헤오디

만일이틈을타, 담을넘어도망향면, 거의될싹향다  
 향더니, 아이밀디의두놈이, 눈압히우뚝섯는지라, 또성각향되  
 저두놈을, 처박지르고, 나가겟스나, 장검츠고, 단총가진순경이, 왕래향니, 적슈  
 공권으로, 엿지할고

할일업서, 도로드러와, 저두놈의게이걸이나, 향여불가향나, 두놈이, 귀먹고병어

리갓치, 눈만가지고약한을직한다, 약한이, 울며비러도씩섯고, 웃고달히어도씩섯  
 고, 웃짓고육향야도씩섯고, 맥주를잔에들고, 권향야도일향서서, 붓지안는지라  
 약한이, 아모리향야도, 두놈은요자부동이라, 날은점々다가고, 히곳지면, 오늘  
 밤을또엇지, 살아날고, 빅게물척으로안져서, 두놈의거동만, 숨핀다  
 두놈이, 약한을적히고잇서, 심々향여, 그릿는지, 원래편기향여그런지, 담배를펼  
 적먹는디, 담배가씩귀흔모양이라, 디써리를골나, 연디가식을시업서, 쯔조먹는  
 지라

약한이이를보고, 못득싱각이나며, 뜰에나려, 혼나무입을, 싸가지고, 낄시를맛하,  
 시험향니, 그나무는, 서역물로(피람등라)라향고, 번역향면, 녀아화(女兒花)라, 그  
 성질을볼향즈향면, 유독향야, 사름이싸들어치는, 성질이잇슴으로, 약한이, 전일  
 식물학공부할쎄에, 모든날긴가향고, 시험향앗더라

이쎄, 약한이, 녀아화의남을싸서시험향다가, 낄시가지독향야, 손을싸스라향고,  
 연못가의이르러, 두루숨혀보니, 못물이김지안코, 슈치잇서밧갓으로통향야, 외촌  
 으로나가거늘, 다시돌쳐서서, 그나무닙을싸가지고, 도라와, 먹든담비에, 석거두  
 고, 짐짓, 두놈을뵈인다

두놈모를쎄에, 순전한담비를밧구어, 연디에담고, 두놈보는디, 불를달혀, 쎄스쌀

고, 안젓스니, 엇덜게업는지라, 두놈이, 날마다분죽, 약한이, 그님을싸다가, 담비를 먹으니, 관배치도안코, 담비도조흔지라  
만일약한을, 직히고잇는터이, 안이요, 다른허물이, 업사량이면, 약한에당장먹는  
담비를, 청하여달나흐엇겟지마는, 술도안으뵈어먹은터에, 서로히, 담비달나기검  
연하야, 푸르다, 푸른입을싸셔, 벗혀볼란다  
이놈은, 약한이, 가천지, 그렇더령아흐래되던, 날이요

약한이, 녀아화님을, 싸셔담비시작한지, 나홀되던날이요, 인비가, 대포로, 장슈촌  
함돌식인다는열스흔날이라, 상오가, 홀적넙고, 하오가되야, 비로쇼두놈이, 녀아  
화님을싸셔말니

약한이, 심중에하날이, 나들도으신가하며

어서말녀지고, 어서물여먹어지고, 저두놈이먹으면, 너목적이달하리라

하며조급하야, 안젓다섯다, 펼쳐드나드니, 서산에셔러지는, 석양이제빛을, 다거  
두어가지고, 허위허위, 가는지라

이씨아이밀디의두놈이, 녀아화님을담비에, 석지도안코, 썰々뭉쳐, 불에더려, 두  
놈이마조셔々, 먹다가, 이마박이를, 맛부뵈고, 격구러지더니, 아조죽은놈갓치, 정  
신을일헛더라, 약한이, 그거동을보고

올타올타

하며급히뛰여, 유형고로, 달녀드러, 제일실에강렬살을, 흠쳐녀여, 품의감초고, 추  
형슈십기를흔티모아, 싸셔냥을박々거어서, 네곤티, 불를질으니, 가련하다, 유형  
고에, 삼시간화광이충련흔지라

처음에, 약한이, 추밀각에불을노라다가, 이곳은파슈가엄밀을썩아니라, 각석제조  
가, 모도강렬이니, 조곰그릇하면, 조는호랑이, 코찌르기라하고, 먼저추형고에, 충  
화하니, 이추형은모도남그로, 믿는것이라, 갈넙에, 불붓듯하야, 짐은연괴스면에  
이러나니, 일시에불이야소리, 전촌이뒤집고, 각처의검의줄갓혹던화줄이응々울  
니더니촌내각구에서, 번기갓쳐달년, 스면팔방으로, 구화대가모라들며, 인비또한  
나아와, 괴를엄명하고, 수죽련속흔, 구화티을지휘하야, 슈십기, 무즈위를, 근방못  
에, 당거노코, 종기스관으로, 물을켜 은하슈를기우린듯하나, 화세더욱밍렬흔지  
라, 인비호소리를, 크게저로며

늑능히본고의드러가, 목상즈에대포본보기를, 녀여오면, 상금심만원을쥬리라  
하나야모도, 나셔지못하는지라, 그분보기는, 인비가, 신발명흔것이니, 십만원이  
비록중상이나, 더벌화중에드러갓다, 몸덩이타죽으면, 빅만원인들, 썰티잇스리오  
이럼으로흔사름도, 응성하는이업더니, 홀연인비등뒤의셔, 소리지르며

내가간다, 내가간다  
하는소리에, 인비가반석하야, 불빛헤어는보니약한이라

(인비)네가, 약한이나  
(약한)그릿쇼

(인비)네가, 대포본보기를뵈어오면, 내너를선고하고, 죽이지아니흐야  
(약한)죽으나스나, 고심갈력흐든, 본보기가, 지가되겟시니, 엇지앗갑지안쇼  
나는이러나더러나, 죽기는일반이니, 조금이라도, 본초에유익하기를바라오  
(인비)장하다, 우리약한이여, 아모려는, 너죽으면, 심만원은네유족을츠져주리  
라

(약한)고맙쇼

항며일변흙의등을츠지니, 밭서십여지를, 등대항엿거늘, 약한이 그중오리가는흙  
의등을, 골나가지고, 몸을숫쳐, 불속으로, 쉼여드러가니라

이씨, 슈만명인히중에약한이뛰어드는것을, 모다용밍한다, 칭찬하나, 약한의, 밭  
숫다는되는, 장슈촌이라, 추형고뒤로도라, 너아화를얻는지나, 손씻든못가에이르  
니, 홀연벼락치는소리나며, 추형고마루째, 썩러지니약한이흔즈말로

더놈들이, 필연약한이, 화장항였다, 항리로다

항며슈구가에서서, 두발을모아, 선씩뛰어, 물속에드니, 물깊하철팔척이요, 물을  
이세여약한에몸이홀치여, 너러가더니, 다리시이에, 무엇이닥치며, 스츠히에걸니  
거늘, 이러안지며, 손으로만저보니, 열십자로 가로막고, 세워막은, 렬장인디, 이  
렬창을버셔나면, 곳와촌이라, 약한이, 미리아는드서, 화중에강렬살을너여, 렬창  
을오분시간이나살되, 겨오반을살코반, 이남어, 손의힘을쓸슈업고, 흙의등에, 공  
의점사외진하여, 호흡이불쾌하니, 가심이, 덜스덜니고, 정신이앗득앗득하야, 스  
스로싱각건디, 홀일업시, 죽을다경이라, 혼미중에, 렬창을괴예신으라고고, 다시  
홀번치니, 강철살이 손길에혈냉하더니, 물속에담방싸지는지라

약한이, 하늘을우러러탄식하며  
십여만인종을구제하쇼서, 오날밤에, 장슈촌이화를면할진디, 이약한의, 홀목숨  
은이곳에서죽어도, 한이업겟스오이다

항며벌덕이러는, 두손으로렬창을붓들고, 죽을힘을다드려, 좁아나구니, 렬창이  
부러지며, 알과쏘쳐, 수처밧그로나오니라

데십창 장슈촌의조직

한달전에, 일이만일스신문에, 좁디를제지항앗시되

아미리싸흙중구은, 각구인이, 년스이드러와, 번성하되, 그중인구슈효만키는,

우리일이만사름이요, 그중신의하고, 이상이면성항기논, 장슈촌이니, 이촌을설  
 시훈주인은, 별국의학사좌선인디, 우리런철출주인, 인비학사와, 책분이잇서,  
 그번성히발달음은, 실로우리일이만의, 덕을입어, 그러다항노라  
 만일, 천하디도를피고, 장슈촌잇는곳을, 차지라하면, 아모리저세한디도라도  
 이디방은, 업설것이니, 이는오년전에, 인적부도쳐요, 천저한디명이업는연고이  
 라, 이제보건디, 북위사십삼도십일분삼초요, 서경력이십스도스십일분십칠  
 초이니, 즉티평양의연안이요, 남그산택으로, 떠러진, 들지가지개특산별관이니  
 귀후온화항야, 한셔가, 고르고동남북삼면에, 놓은산과, 첩々항봉만이들녀, 질  
 풍악귀를막고, 서편한면을열어, 티평양의셔, 드러오는공귀를받으며, 좌편에하  
 슈잇서, 물맛이청렬하고, 토품이, 기름져, 농스가풍등항니, 좌선이, 이곳에이촌  
 을설시함이, 과연쇼견이, 업시안러라

장슈촌설시할셔, 맛츨청국인슈만명이, 미국인의썩긴바되야, 동셔표박하고, 유  
 리기걸항야, 디경박그로, 나가거늘, 좌선이, 공샤를후이주어, 일병공역을식이  
 고, 셔제와목제의달들등은, 각국의실업가이, 좌선의이스업한다는, 풍문을듯고  
 모다모여드러와, 즈원항여, 담당하고, 또각국의학사와, 무슈회의항야, 본촌제  
 조식을마련하고, 촌내에가우을, 일병변들로지엇, 련단스 백돌중  
 논사람 슈인이신발명환

형식으로, 소귀변들을구으되대소츨치가업고, 낮々치중심에, 궁글녀, 항상공  
 귀를등항고, 습귀가범으지, 못항게항였다라

이제, 그조직항과, 제조식을, 좌에대강귀독항노니

데일은, 집마다전후좌우에, 썩나무와과목을, 만히심우고, 집한간에, 여러사름  
 이거쳐한면위성에히롭다, 항야항두, 사름에지나지안게항고

데이는, 집々이, 문압히열거름나와, 큰길을내여, 통상가로와갓치항고, 집안에  
 도, 공디를넓게항야, 난간을들으되, 가심에다케항고

데삼은, 무론아모집이던지, 루각은이층에지나지안게항야, 각기공귀를통항며  
 일광을가리저, 안케, 항고

데스는, 담과벽을본촌에서, 신발명항야구은변들로, 썩케항고

데오는, 집々이첨아를, 균평항게항야, 스면으로비물받난등을다라, 비물이흐곳  
 에모야흐르케항고

데륙은, 집々이디판밧히, 두셔즈를의게항야, 스면으로열어노아, 더러운귀운과  
 몹실남셔가, 머으지못항게항고

데철은, 부어과업셔두는쳐쇼는, 상층집놓은디, 썩여, 연귀와님셔가, 사름에게,  
 쓰이지안케항고

데 팔은, 짐속의, 각사람성미대로, 정이슈장하되, 도비지와, 담전렬붓치는, 일절  
엄금하야, 버레와곰팡의, 전열하는독기가, 선치이게하고, 나무와돌로, 짐실  
이나가화를, 괴교하게적여두고, 시수로물섞어, 먼지티끌이엿게하고

데구는, 침실을항상넓고, 양명하게하야, 의복과음식등을이라도, 조는방에, 두  
지못하며, 사름스는것이, 삼분일의광음은, 전혀밤잠조는티잇시니, 부득이급  
훈일의에는, 잠조는시간에, 범치못하게하고

데침은, 짐안에, 란로를섞미되, 연기가집々이, 각々나가게안코, 슈십여가의연  
괴등을훈디모아되, 쌍의셔열두길을올나가, 공중에섞게하고, 란로에미탄  
은독하, 지안하, 연기나는것으로, 꿰이게하다

이열가지는, 짐제도가, 이러하고, 촌에사는사름은, 아모사름이던지, 훈가지지  
업을, 잡게하니, 좌선의말이, 사름이건강코저하라면, 미일신체의운동과, 휴식  
이, 균일하는것이, 데일이라하야, 네살된아히부터, 유치원에드러가, 데조들의  
하고, 또거쳐범택이, 조출하, 지안하면, 병이조난다하야, 아동들이라도, 의복  
을정결하게하고, 옷것이나, 소미, 에쌈이나, 셔가못엇시면, 곳압혜불너세우고  
욕을뵈야, 다시사름을, 못볼듯시하며, 지어음식은, 위성데일긴요하다하야, 음  
식장소가, 후상훈물건을, 성훈물건에혼잡하야팔면, 곳독약으로, 살인물을쓰고

또좌선이, 훈상물하되, 요사이소위병원은, 오빅가지천가지되는병이니, 훈디들  
석거잇서, 이사름의병이, 더사름에게음고, 더사름의병이, 이사름에게전하야셔  
로방히가, 되니대단히불가하다하야, 장슈촌의병원은, 훈간에훈사름이, 잇게하  
고, 벽으로석을막아, 셔로기운을, 동치안케하고, 병원은벽돌을, 안니쓰고, 목  
지로지여, 미년일자로, 불을노하, 소멸하더라

장슈촌의호구가, 이상히늘어, 초년에는, 룩빅호가, 삼년동안에, 구천호가되고,  
지방은, 십여만인구가되며

출중전도와, 가옥의제남은, 극히혈하야, 촌슈가츠지하고, 촌중의범빅민스와  
형스는, 위원회로, 결쳐하고, 촌민위성총회는, 좌선이, 주장하되, 독단하, 지안코  
각국의 하스와 루츠와왕복하야, 심분심신하더라

신세계와, 구세계와, 동서양에, 평균죽는사람이, 매년에빅의셋씩되니, 지극히  
히적은슈호라, 장슈촌은, 설시훈이후로, 다섯히에, 평균하면, 매년에불과빅의  
일분오리씩되니, 이는오히려, 초년에빅스가미비하고, 질병이류행함으로, 이슈  
호가되얏고, 만일, 작년의조사함을보면, 빅의일분이리오호가, 되니, 이일분이  
리오호는, 조상의류전하는병으로, 물미암아그러하고, 불시여역으로, 죽은자는  
도모지업스니, 이럼으로, 장슈촌사람들이, 조랑하되, 삼십년후에는, 장슈촌에



서명드려죽을, 사람은 업고, 빅세나이빅세를살다가, 절로죽어, 썩나 무물너죽듯  
할다하더라

데십일장 촌민의총회

이제, 귀족상봉에, 올라, 서편으로, 티평양을굽어보면, 일변만경에, 창과가호하  
탕々하야, 좌우에빅옥갓튼, 대리석연덕을쳐며도라들고, 평원광야에, 슈천만가옥  
이, 질바하야, 정々제々흔, 도로와구혁이, 바둑판의줄쳐듯, 기우러진디업고, 짐々  
이스면에, 가화이무은, 짐슈릉라를퍼노흔듯, 사기벽돌로, 담과벽을싸아, 일딩흔  
시간에, 쓰레질을자조하니, 일점진의가업고, 허상에붉은바람은, 청신흔공기를모  
라다가, 십만인종의, 호음을자양하니, 이는곳법난서파리부대의원학사좌선군의,  
장슈촌이라

이날은, 무슨날이며, 오날밤은, 무슨밤인고, 달빛이정히붉아, 하늘이나바다나, 흐  
빛으로, 만리에, 유리경을, 마조열어노은듯흔지라

좌선군이, 친구, 두세사람과, 경치를, 완상하고, 술를나와, 한담하다가, 맛참하인  
이, 누육빅특신문을드리니, 인신문은, 장슈촌의규모와데도를찬, 성하야창설흔이  
후로, 여러번세계에포양하고, 히마다, 장슈촌이인구스망수효가, 초々감하는것을  
게지하야, 세상사람이, 다부러하고, 다른각신문보다, 특별히친절흔고로, 세상이

평론하되, 비이특신은, 장슈촌의대하야, 괴관보라하는, 신문디라  
아씨에좌선군이, 신문지를바다, 차례로분죽, 흔급보가잇스되

은근히, 원슈갓치티흔, 련렬촌과, 장슈촌에, 오날놀나은담보가잇스니, 그위절은  
모로거니과, 련렬촌이, 오날십삼일야반에, 장슈촌을한번에멸망케하느니, 이  
는가장비밀하고, 음흉하도다, 우리가확실히, 믿을징거가잇기로, 특이등지하  
야, 장슈촌여러사람의게, 보도하노니, 급속히방비하야, 더디지말나, 더디지말나  
하얏거늘, 조선이, 보고심중에경동하야, 일변싱각건디, 인비가, 엇지포악함이, 이  
러홀고, 무단히동병치못하겟스즉, 음모암계로, 우리장슈촌을도모하니, 인정도리  
상에, 응당이러치못할지라, 또일변싱각건디, 정담으로음명흔, 신문이요, 또우리  
가절천후사이에, 공연히, 광설로우리장슈촌을, 소동하게할리업스리라하교, 신문  
지를여러사람이, 돌려보며, 계획의론하니, 모다일으되, 본촌상의원을소집하야  
회의하느것이, 을타하니, 본촌에, 그전부터, 상의원삼십명이잇고, 짐々이던화를  
등하야, 미야일이잇스면, 즉사키회하야, 서로보지안코도, 흔좌석에, 슈착하느지  
니라, 이씨던화괴로, 문답한다

(좌선) 제군이, 다집에잇소

삼분중이, 못되여, 회견하되

다잇소

좌선이, 또전화호되

오늘밤당각에상의원림시회를호겟쇼

말을맛치고, 신문디의급보를, 목소리도흔사람이, 셔셔일거들니셔, 일시에삼십명 상의원이, 다듯고, 다알엇더라, 금시로전화과호곳에서, 쌀으를호며

회장류호호요, 그런즉, 방비호도리가엇, 다케잇쇼

(좌선)줄지에방척이업기로, 급히회의를, 청호엿쇼

또호곳에서, 쌀으를호며

회장철호, 요시방준비호야, 막을게척을호되, 몇시간이나되오

(좌선)시방팔, 점종이 지나고, 녀점종이, 남아스니, 덕단이 급호오

또호곳에서, 쌀으를호며

회장이호호요, 그런즉, 우리가손을묵고, 안저죽기를기다리오, 들에나가, 더와점

전호터이오

(좌선)멀니나가, 점전호면, 본촌은병화를, 면호겟쇼

또쌀으를호며

회장일호호요, 방어호근비를 열마즘예산호오

(좌선)쇼불하, 일천오백만원은, 가져야호오  
회장그러면, 데일호에, 촌민총회를호고, 이일을회의호즈호오  
호는탓해, 이호가참성호는지라, 좌선이, 일호의물디로, 각회원의게통호니, 삼십  
던화과에서, 모다일치호게디답호니, 좌선이, 전회의이론이업습을알고, 촌민총회  
를, 호엿더라

이때, 여덜점삼십분종이라촌, 민이모허들기, 시작호니, 짜로기, 살갓흔지라,  
촌중에다섯집식, 혼등을마련호고, 미등에, 등근기등세우고, 그탓해, 던기종을쌈  
여, 던선은본촌중앙회의당으로, 모앗시니

상의원이, 중앙회의당에서, 각정던선으로, 등보호즉, 전촌이일시에, 종소리를듯  
고, 촌민총회되는줄알엇시며

또등근기등을세우고, 그우에스면으로, 시계를쌈이고, 그속에등을달아, 밧그로벳  
치게호고, 장단침으로, 기회호는시간을, 돌려보이면, 촌민이종소리를듯고, 분주  
히모야와셔, 그시계를쳐다보아, 짐작호더라

이때기회는, 아홉점삼십분으로, 등호엿시니

전촌인민이, 삼셔오셔로, 성군장디호여, 락력부절호며, 회의당마당에가득호니,  
이때촌민은의아호되, 오날밤회는무슨일로, 이리급호호고호더니, 빌셔회의당과

특실에서, 속서법으로 상의 원회의 일통을, 번등항야, 즉각에 인쇄실에서 불간항야,  
미인 일장을 돌녀 주고, 동구 대도에, 광고를 붙쳤더라

구점 삼십 분 뒤, 의회장이, 방을 열을녀, 기회하니, 상의원중에, 한사람이 단애을  
나, 극히 간단하고, 명백함을으로, 연설하고, 뜻하다 시는 말은

제군네들, 오날々 만일 광범항야, 용맹도 업고, 이국심도 업시면, 필연이 밤으로,  
이촌을 썬노 피화나 할지니, 그러코 보면, 우리 장슈촌사람이, 오리 살기만, 육심환  
바요, 엇지 우리 좌선군의 본심을, 아는 바리오, 오날날 세계에, 심오만々 싱령중에,  
우리 장슈촌인민아, 으뜸이 되고져 할진디, 맛당이, 고상한 생각과, 격양한 의의를  
가져야 모리 화석이 막두항고, 곤난이 비상을 지라도, 스정 존망을 한가지 항야, 장  
슈촌의 만세 기념비를, 세울지니, 그런즉, 이 세계에 몸실악적과, 일장혈전함이,  
만부득이 할일이요, 또 수천년 후에, 우리 려스를 보논이가, 눈물을 썬리고, 천고,  
를 조상항리니, 우리 장슈촌이, 오날 단슈촌이 될자라도, 후세에 뜻다운 일흥은, 만  
세 무강항리라

하니 일시에, 만장이 분기 격동항야, 손바닥 치는 소리, 우뢰갓더라  
의회장 좌선이, 회중에 물항

창졸하, 방어 할 계획으로, 군비를 모집할지니, 오릭 만원을, 보조항노라

하니 이적, 전회가, 다 그리 알고, 허여질식, 벽상에 패종이, 발서 열점을 치더니

홀연, 연설단에, 발나 뛰여 올로는, 한사람이 잇서, 런상에서 내려온듯, 디중에서 소  
스는듯, 회중을 놀리는지라, 슈만회장이, 방장대란이 막두항야, 순식간을 다도아,  
분망항다가, 일시에 돌쳐서서, 단우를 바라보니, 듯도 보도 알도 못함, 인물이, 의복  
은 남루항고, 형식이 초최항나, 괴기가 현양항고, 의기가 격양항니, 회중이, 서로 도  
라보며, 만심의 아할 즈음에, 그사람이, 손을 놓히드러, 외이되

제군들, 현화 말고, 나의 말항마디, 드로시오

내가, 련렬촌에서, 아홉번 죽고, 항번사라, 도망항여왔소, 련렬촌슈인인비가, 오  
날 밤으로 장슈촌을 천다항고, 나를 가도아, 죽이려한지, 밤낫 열엿시에, 철산디옥  
을 버셔나, 아모 조록, 더의 거스항기전에, 우리 제군이, 알게항자항고, 천신만고  
항야, 이에 왔시니, 응당나를 모를리다, 그러나, 평일에 날과 친한 사람이라도, 너  
가 슈년을 고싱항야, 얼골이 변형되엿시니, 오날만나도, 알아보지 못항겟쇼, 우리  
선성좌선학사는, 무양항시오, 련렬촌인비의 심사를, 정람항라, 슈년전에 가든,  
마극을 모로시오

좌선이, 이 말을 뜻고, 급히 손을 드러, 불으며

우리 마극인가, 우리 마극인가

마귀이, 다시말하되

인비오날밤, 열흔점사십오분에, 전세계에, 업든대포로, 장슈촌을함몰한다하니, 너그대포도보고, 탄한도보오쇼, 시방으로, 남너로쇼가, 이마을를써느, 어셔뵈비, 독화를피하시오, 전삼갈력하야, 창설흔이마을이, 호로밤의탄흔이되리니, 누가웃기지안으리오만는, 지금열점십오분이니, 흔점반만지체하면, 십만동포, 그림자도업셔질러이니, 무엇을다시, 도라보겟쇼

습흐다, 더마귀의이말이, 만일구라파나, 구세계에잇스량이면, 듯는사람마다, 바람마졌다하교, 고지듯지아니하겟스나, 아미리셔신세계에, 잇는사람은런디간에, 무슨일이던지, 크나적으나, 아모아모인력으로흔다하기에, 인비의, 대포신발명하

다는말이, 허탄하지아닌줄, 아는지라  
이때회원이, 일제하나라나며, 좌선의지휘를가다려, 사면으로흐터져, 전지도저하야, 짐으로가셔, 흠으니는붓들고, 어린아희는질머자고, 방수곡수이, 너셔수, 기투산을바라보며, 열거름을흔건름에가자, 성화갓치, 모라갈제, 회의당벽상에, 종소리, 쌍수열흔번을천다

좌선과상의원은, 회의당에, 그져잇셔, 촌민이다피란흔후에, 그뒤를보라하교, 안젓더니

마귀이, 무슨정신이돌아, 생각이나며, 품의셔, 급피디판을너여들고, 연필로, 휘々 들느더니

신기하다, 신기하다, 여러분, 이산식을보시오, 이산식이, 바를진된, 인비의, 세음이, 틀일것이니, 더대포의힘이, 링령하야, 필연보촌에, 떠러지지안코, 지나넘을것이니, 우리도겸하야, 기투산에올나가, 봅시다, 마귀의, 예산이을흔가, 인비의, 예산이그릇된가, 지금이십오분이되면, 알겟쇼

하며, 올나가가지축하니, 좌선등이, 산식을보고, 기연가미연가하야, 일시에기투산을올나가니, 정히열흔점사십스분이이라

산상봉에, 방장을나셔며, 흔분종이, 마져되느덕  
흔연현렬촌에서, 코고등근, 흔덩일이, 너분하개셔느오며, 발셔좌선의, 머리우호로, 헝々 지나가는지라, 마귀이, 쳐다보며

허々, 허々, 묘하다, 이세상에, 큰도적이, 너를부러하겟다, 인비의익만원황금을, 흠쳐가지고, 더러케몸이가비여히, 구만리장련으로, 나라가느나

하느소리에, 좌선과상의원이, 모도쌀々웃고, 너러오니, 다시두분시간이되며, 련동갓치, 우루루, 우루루, 하느소리나니, 이는탄환짜진후, 대포올니는소리러라

데십이장, 익만원쓰리, 대포를, 편지흔장으로갑는다

구월열나 혼날, 낮 후에, 혼사람이, 손에편지함봉을들고, 련철춘문밖게와서, 문졸을유니, 문졸이바다가지고, 줄다름하여, 추밀각스즈방에, 들이니, 인비가, 반가은  
 기별이느, 볼듯시, 황황이썩여본다  
 그편지에, 향였시되

그티와, 즉별한지, 이십스점종이못되었시니, 기간에피즈늘나고, 곤란한일은, 상황히물흐를것업거니와, 그티싱각는지, 모로도다, 당알약한이라하는쇼년이, 그티의대포추형을, 셔슬도달치안코, 곱게가지고도망하여, 련철춘밖그로나와사니, 그티의은혜도, 만하입고, 그티와비밀을, 의론도만하하더니, 오날々이러할줄, 그티엇지알엇시리오, 그티나를약한이라부르고, 셔서사람으로, 알엇시되, 이약한의원일함은, 마구포스밍이오, 본고향은아이스스고을에잇시니, 그티김히맛고, 심히사랑하여, 데일등제도스며, 괴관스를삼고, 잠시도갓히셔는지, 안캐하니, 지극히감스하나, 너도로허붓그러은바는, 나의, 순슈나전인종법난셔사람으로, 그티의, 우렁이속가튼, 심스를알녀하코, 성을숨기며, 일함을고쳐, 그티를즈못속였시니, 그죄도망키어렵도다, 그러는, 슈년간을, 밤낮으로신고하여, 그티심스를알고, 련철춘에, 식귀신아니되기는, 또한다행한지라, 어제밤에, 우리장슈춘으로, 그티의, 쇼흔대포에, 혼쇼탄환을, 보닐줄알고, 간절히기다리고,

바랐더니, 그티중흔보물이, 쓰기를돕히하코, 날기를셀니하야, 손으로붓들슈도업고, 발로쫓쳐갈슈도업신즉, 팔경하늘뜻치는, 쌍박게, 썩러지고, 우리는, 쇼득이업시니, 우리도, 낭피거니와, 그티엇지하다가, 허슈이보너였는지, 의아하는바라, 그러하나, 그티략간빚만큼들여, 하늘뜻쌍박까지, 올니는명예를샅시니, 나의얏흔쇼견에은, 실로굉장한지라, 오날추밀각에, 높히안져, 얼마나쾌하고, 절기느고, 일커르며, 천일은혜를싱각하야, 두어즈글을받들어, 하례하는정을, 표하노라

향앗시니, 인비가보고, 오작향였시리오마는, 이런셔찰은, 인비혼자만보니, 다른사람은, 모를니라

장슈춘이, 호소요를겪고, 후환이업지못하여, 정히근심이되니, 이는인비가, 또무손흥미를녀어, 불시로죽철는지, 물을지라, 이에방어위원을, 조직하야, 불우지번을, 방비할시, 마구이, 슈년을련렬춘에잇서, 듯고보던일을, 제々하, 좌선게에고하코, 그리고의각공장에, 창포탄환을, 낫々치그려, 척에박혀, 전초에분과하코, 시々로, 방어위원이모혀, 의로할시, 마구으로, 슈석에안치고, 범박스를지휘하코, 일변으로탄약과렬물을, 준비하야, 군기창에두며, 일변으로, 면보틱분과, 각석치소를, 광구하야, 군량을저축하코, 또초중에공디를, 기척하야, 우양슈천만두를, 치게하며,

상비변을 소모할야, 년의와 자격이, 군의를잡을자이면, 일병군적에잇고, 군복은모  
 지에, 왜자와, 나스슬같이며, 장화혁대모자들을, 흥복식으로지여, 날마다, 기예를조  
 려할며, 흥촌의에나가, 각처요히디에, 흥을파, 흥을지고, 그관흥은, 포대를쓰아,  
 적병이모쳐에, 드러오면, 즉시모쳐로방비케하고, 기츠는, 대포를짓되, 짐々に날  
 로연고, 흥디로썩든곳을, 번죽할야, 단련창을민들고, 마극이, 총고문과, 총경리를  
 결할야, 각식제조를, 가르치되, 손으로형용하며, 입으로설명할여도, 알아듯지못  
 할면, 곳웃통을버셔노복, 각공인름에, 드러가치부여하니, 슬하다티평무스할야,  
 회괴를스스하고, 흥갓자선삼과, 천이정으로, 곤란을모르든장슈촌이, 일조에, 대포  
 를짓는다, 장창을치인다, 무슈흥살인구를, 준비할노라, 동서분주하고, 주야황망  
 할니, 연하의비참하고, 슈란흥이, 이에서더할스잇스리오

그러나, 장슈촌에, 백주랑설과, 후야허성이, 비일비지할야, 후은인비가, 서법을너  
 여, 물밋히잡힘군함을지여, 장슈촌의인민이, 눈으로보도못하고, 귀로도치도못하  
 게, 죽천다할며, 후은공중에비힘거를, 지어불시에벼락치듯한다할며, 또후은적병  
 이, 발셔장슈촌의, 중앙렬도지선을쓰었다하고, 후은또적인이, 쌍속에길을너여,  
 귀득산을거진팍다하니, 이러흥, 종스소설에, 아등부녀가, 더욱황겁하되, 실상은  
 괴척업고, 장슈촌의, 제조구역은날마다, 번성할더라

데십삼장 상항사회장의, 연보

합중국에상항은, 세계에유명향큰구라, 동서남북이, 사동팔달할야, 기향흔지,  
 오리지안이흔되, 오대주에상고가모여, 무역이번성흔지라, 이날십일십일이일은, 상  
 항의, 공동히모히는시장이니, 각처상고가, 장석와, 문셔며, 주판, 과연팔을슈대가  
 방이, 특러지게너여, 엇기에메고, 모야드리, 각기명하의, 우체상자를열고, 슈십씩  
 장되노, 셔찰을너여, 낫々차퍼보고, 오정시각에, 기회할야, 시장중앙에, 당일각처  
 물사표를, 놓히부쳐, 천백명장스들이, 돌아서々보고, 도화하는사람도잇고, 거정  
 하는사람도잇시며, 놀나는스름도, 잇고의심하는사람도잇셔, 예셔수군수군, 데셔  
 수군수군, 구셔구셔이, 지걸지걸, 복작복작, 천디만상을, 형용치못할너라

이셔, 아제아와, 구라파와, 아미리셔와, 본주아미리셔각지방에, 연보가빛발쳐듯,  
 드러와, 사회장에퍼지면, 오대주슈만리가, 지척갓치압히잇셔, 형편을알고, 흥망  
 성쇠를, 짐작하는지라

흥연, 흥사람이, 나셔며, 흥년말이

년성각에는, 이일이필시랑설이니, 밋을것이못되오

또, 흥사람이, 너다르며

그러노, 속담에, 이르기를, 바름이업시면, 물결이, 안이닐고, 불을써야, 연기가

는다하니, 이 말이, 필연사색이잇쇼  
(압히흔사람)그러케, 흥왕흔스업이, 경각에파산될리가잇나  
(뒤에흔사람)계상스를엇지알셴, 오침에부가응이, 저녁에결인되는걸, 못보아  
심나

(또흔자)설혹그러홀지라도, 그집과그기계만, 팔천원이되깃쇼  
(또흔장)그것도고사하고, 그성털속털단광등속을, 계산하여도, 팔천만원이, 더  
되겠니

(압히잇는사람)올치오, 그러킬일이갓쇼, 헐가방미하여도, 인비의저산이, 일어  
만원엇치, 될것이니, 이것은현저흔물건만, 말이오, 기외도일만지, 알슈잇쇼  
홀연, 흔사람이, 무슨말이

그러면, 공네들, 그저산을자세알진된, 그무슨사색으로, 졸디에장석들, 공전을  
중지할앗쇼

(압히잇던사람)이논, 참알슈업시나, 이말이당녕그런지, 모로겠쇼

(뒤에잇든사람)요사이, 소위큰장스니, 부자스름이니하여도, 다빈집질만남어  
서, 앓침에, 저자버렸다가, 낮에문닥어버리고, 폐점하기를, 풀々하니, 이는장스  
의전례요

(흔사람)압만, 그렬지라도, 이런렬초은, 큰도부가되야, 흔사람흔장스의, 저물  
이안이요

(또흔자)이말이참을쇼, 렬렬초은, 고샤하고, 잡화상의, 변々치못흔자이라도,  
이러케초々히파산할, 리유가잇쇼, 인비가저산을, 손히보앗더리도, 녀々히또빛  
을너서, 사회를싸로쌌이고, 그저잇실리업쇼

(또흔사람)인비의파산흔일이, 가렬상점의, 관계가된족, 후렬물장스가, 위조흔  
논일인지, 모로겠쇼

(또흔사람)안이오, 위조란말이될말이오, 니쇼문은, 인비가파산할뿐아니라, 또  
도망하여, 어더로갓는지, 모른다응음디다

흔말이나더니, 왁썩것결흔던, 장바닥이, 모도입을봉흔듯이, 아모소리업고, 이  
말흔사람만, 썩쳐들가며

조세히, 좀아옵시다, 좀드름시다

흔면서겠히사람이, 흑무슨말흔면, 가만이잇시라하고, 손을휘즈며, 쉬々흔는디

(그사람)공네들, 던보못보앗쇼

하니그제야, 또씨장부관으로, 물켜들며, 던보를본다

그던보는, 누욱의서, 이날오정후에발흔던보인디, 상항에늦게와서, 흔사람이먼저

보고, 혼자 아듯이, 말하니, 여러 사람이, 놀랄만도 하였더라  
던보에, 써시되

런렬초의, 중앙은형이, 혁파하고, 인비도망한다

하였거늘, 일시에, 물청이 소란하고, 시가가, 고등항야, 강렬감이, 혼초총에, 열마  
식오르더니, 두점총이 못, 되야 팔비상이 되고, 아미리사 각처, 제렬공스에 품삭이,  
고등항야, 이비삼비가 되고, 기외에 열물장스 명식은, 모다 일이 비식다오르고, 그중  
희한하기는, 런렬초이 장슈총을, 멸망한다는, 사화에, 장슈총쌍감이, 혼돈엇치가  
못되야, 심지어, 시가 표에 올나도 안더니, 시방은 별안간 뒤여, 일평에 일빅팔삼원이  
되었더라,

이날저물게, 달이 봉, 아이라, 이가, 가라화, 각신보관압히, 각처장스가, 인비도망  
한일절을, 알고져항야, 도라섯시되, 별로신기할말이 업고, 괴자의 별보가 잇시  
되

지나간, 구월이십오일에, 혁파부가 손상회에 서, 인비의 도장맛진, 팔빅만원,  
출급표를, 가지고, 누욕위스밍은형에, 다지니, 그전날에, 말서문서마감하였다  
하고, 아니주는지라, 각가손상회가, 이일을 인비에게, 던보로 질문항야, 팔빅만  
원을어디로, 제음하였느냐하고, 루즈물엇스되, 답던보가 업고, 또서찰로전안

항되, 소식이 감항하며, 심여처에서, 인비에게, 전보와서 찰보닌것이, 일절회담  
이 업서, 모다의야 조민항야, 루즈최축항느, 스찰공함이, 던보우체로, 연락부절  
항야, 미일슈천만장이, 번기 갖치달녀, 런렬초추밀각에, 드러가스나, 여일히, 신  
디에도달항느지, 모로겟도다, 그러항나, 전일에던보우편으로, 부치는서간이, 일  
일히추밀각에, 보녀여, 인비탁상에두면, 그편지 쓰더보는사람은, 인비하나뿐이  
요, 다른사람은, 서실도달차못항면, 인비가본후에는, 후슈필로회답항고, 혹서  
괴로되셔도항되, 거리항느문부는, 인비가주필로, 조히등에표를맞쳐, 회계원으  
로여슈히, 출랍항고, 조금도지레항거나, 서실되거나, 항느일이 업더니, 몇칠동  
안에, 홀연런렬초모처에서, 도청도설로, 전항되(구월십칠일에, 인비는부지거쳐  
요, 일후스도엇더흔분별이 업더라)항얏스니, 일시에, 각처장서며, 제요상업가  
이, 락심천만항고, 털가가, 고등항며, 인비로말미암어, 손히를당항자이, 모다루  
천만원이상이, 된다항더라

별보와갓치, 인비의 일을안다항느자이, 이러할뿐이요, 기외각처신보관은, 민첩정  
밀한슈단으로, 확실함을람지항야, 일시에요명항라항나, 황설슈설, 천산지산항야,  
취신기어렵고, 또오날론설하나, 녀엇다가, 명일도로딩오항야, 중언부언항나, 혼  
사발닝슈를, 먹고또먹듯시, 보는사람이, 무미할뿐이라



십월십사일밤에, 렬철조사방으로, 각처에서 파송한, 동신자들이, 혼손에 조회되고  
 혼손에 연필되고, 예가 기웃제가 기웃, 놓은되는 발달도듬, 낫진되는 급정거리, 아모리  
 니용을, 보라하니, 물부어실들업는 렬세게라, 혼금이 절엄하야, 혼거름드러서지못  
 하니, 슈문졸이나, 쇠야불가하야, 금전지전을손에들고, 눈을삼져거리며, 땀문이  
 예치이라 혼죽, 초닷로지르라하니, 혼일업서, 단장밧그로, 도라단이다가, 억견으  
 로보고하되

련철조사들은, 인비도망혼일이, 잇는줄도모르고, 각공장은, 여천히제조하야,  
 검은연괴스면에, 일어나고, 기타문졸파슈와, 행인리왕은, 전일과조금도다름업  
 다

하니 이는 그속일을, 저세모를썩어나라, 도로혀세상사름의, 의혹만저심게, 혼는것  
 이리라

그러니, 규틀이엄밀하야, 일동일정을, 스스로이변키하지못하고, 인비가, 공역당  
 지하라는명령이잇기전은, 의례거행하야, 심월이십일짜지는, 덩역지안이하였시  
 되, 이십일되는동안에, 각공인의신슈금을, 인비의예비금중으로, 지발하였거니와,  
 그후에는, 각공인이, 전일신금은, 다업서지고, 다음쥬일에, 인비가, 다시이어주지,  
 못하얏시니, 누가그침임을, 맛하감당하리오, 이럼으로각공인이, 부득이하야, 덩

역하니라

명일, 이십일일부러는, 전일범은구름, 검은안키가, 띠디간에미만하든, 렬철초에,  
 일월이명랑하고, 또귀압하고, 머리압하고사름의정신을, 썩든각의게가, 일시에괴  
 괴하야, 다만츠평락업이, 소슬할썩이라, 이셔각보관에, 방스원이, 필경공왕공리  
 하였시니, 인비의, 비밀들은, 실로세계에업도다

그런즉, 사항시장에모인, 모군의말과갓치, 인비의, 지산이, 기계잡물만하야도, 너  
 너히여러사름의손히를, 보충하겟시나, 일이, 대단히곤란하리니, 정부지판쇼에,  
 정쇼하라 혼죽, 이런렬초디방은, 인비가, 합중국정부와, 합동하야, 산것인고로, 일  
 혼은초이라도, 나라와달음업시니, 합중국지판쇼에서, 판결할권한이못되고, 렬철  
 초지판쇼에정하라 혼죽, 초중스는, 인비가 등찰하야, 대신이나, 판스나, 검출이나,  
 경시등감이나, 공장감독이나, 정탐이나, 상고나, 모다인비의지휘되로, 시행하니,  
 렬철초에, 인비업는것이, 신례의머리업고, 기계에고동일혼것, 갓하니, 누가쥬장  
 하야, 송스를결쳐하리오, 각쥬장은, 아모리구력은동하야도, 효력이업실나라

데십스장 제용도갓고, 부쳐도갓고, 미력도갓혼인비

인비의, 도망하얏다는말이, 장슈초에들니거늘, 첫

데미국이, 말하되이논, 인비의홍페라

향약방어위원이, 귀회하고, 전촌에 고시하되

오늘, 렬렬촌의 파산하고, 인비도 망하는 풍설을, 드렸사되, 이는 정히적인의, 음모 궤계인즉, 우리들이, 방어할도를, 조금도 힘이 못한다

하니 장슈촌의, 방슈하는일이, 더욱 엄밀하더니, 얼마 아니하여, 상흥년보와, 누육신문이, 적실하고로, 각처제조가와, 상업가이, 큰관계가 된지라

구월십삼일이후로, 장슈촌이, 계엄중에잇서, 미양밤을지니고, 날이되면, 서로보고, 손을잡아, 다행하여제밤, 무스하고, 오날다 지산가십어, 송구하더니, 아제는, 악몽을찌이고, 중병노흔듯, 운무를헛치고, 청련을보듯, 회々략々하야, 동린셔스에, 연회만찬이며, 남가복리에, 풍악가무가, 다시넷날장슈촌이되니라

사람이, 환란중에잇시면, 서로벗들며, 구완하는정이나고, 벗들며, 구완하는정이나면, 또셔로친의하고, 조선한마음이나난법이라, 이제장슈촌이, 월여를두고, 로소남녀와, 귀천상하업지, 각々제목과, 제목숨을, 위하야, 환란을방비할즈음에, 천의하는정이, 골육갓고, 조선한마음이, 골슈에박혔사니, 이는장슈촌이, 스스로이국심이, 단레가되였다

오날々, 렬연각과, 괴렘비에, 데일대공노는, 마극이라, 다행히, 인비가오산하여, 대포탄환의향방을, 아지못하얏사나, 만일바로쏘아맞쳐든들, 촌민이엇지대화를,

면하였사리오, 이럼으로, 마극의은혜는, 실로심만인중이, 각골난망할지라, 촌민들이회의하되

혹은, 구리로, 마극에상을지여, 기념하자하며

혹은, 귀중은물품을, 마극에게보너, 감사하는정을표하되

향약의론이부산하되, 마극은, 종시자가의, 살력을미딘다하야, 일편의운이, 렬렬초우해, 몽동하니, 만일풍문의말을밋고, 방비를허슈하다가, 일조에적인이, 불의에돌출하야, 우리장슈촌을, 도륙하면, 엇자만세에우음을, 면하리오, 너다행히, 그혹모를대갈알엇사니, 저암, 렬렬촌에드러가, 무슨흉계가, 또잇는가자세알면시원하리라하고, 죄선의계, 자청하야, 또렬렬촌에, 드러가니라

마극이, 다사가기를결심하고, 또죄선에게, 청하되

이제, 더렬렬초가흔위험한사디에, 들어가기는, 곳마극의사양치안한바어니와, 만일불행하야, 저의게죽으면, 본초에도라와, 고평야 피화하게하랴할들, 인간에, 두별마극이, 업실지라, 너의결은, 한사람을별하야, 갓치드러가다가, 호사람이사라오면, 죽히소식을통하리니, 너그윽히보건디, 방어위원중에, 을투가, 년괴비록략관이나, 담략이파인하고, 학문과품행이, 죽히밋을지니, 저와동행하면, 도을가하느이다

흐죽, 울투가, 이 말을 듣고, 소년에게라, 또한, 자원하고, 갖치감을, 허락하더라  
 이튼날, 마극과 울투랑이니, 마츠를 타고, 렬렬촌의 문에 이르러, 마츠를 들쳐보내고,  
 멀리 촌중을 바라보니, 적사하여, 사름의 그림자 싣치고, 찬바람에, 소슬한 락업성션  
 이라, 문박게 다스르니, 벽밋히 큰도랑이 잇서, 전일은 외나 무다리를 노아, 왕덕를 동  
 향더니, 이제 그 다리를, 치워 버린지라, 심여보나, 넓고, 슈십장 길은 물을, 건너지 못  
 향니, 량인이, 무슈히 이를 쓰다가, 긴 줄을 엮어, 두싣히 쇠갈구리를, 달고, 압담을 향  
 향야, 갈구리 흔싣을 던져, 벽에 미고져하되, 담이 높고, 도랑이 넓어, 슈시간을 싣고  
 향다가, 가싣히 줄을 미고, 울투가 먼저 붓들고 건너, 더편 언덕에 온으고, 마극이, 이  
 어 건너, 그 줄을 다시 벽에, 드리우고, 넘어 드러가니, 예는 마극이, 년전에 익한으로  
 변명하고, 처음 드러오던길이라, 마극이 울투를, 도라보며

더기 삼십륙구에, 니 천일, 슈삭을 동쳐하든, 사름이 잇스니, 문져가 보자하고

바로, 삼십륙구로 향하니, 표석은 높히서고, 중분은 구지 닳았시니, 줄연히 열지 못할  
 지라, 문을 썩치라 향다가

안의 잇는 사람이, 놀날가 념려하고, 싣줄을 미야, 담을 넘어 드러가니, 일초 일목이라  
 제의 연히 서로 아난듯하더라

마극이, 공장을 추자, 전일 약한을, 놀되든 불무독아니를 보니, 불은 새지고, 그는

스라져, 소령흔 바람이 돌고, 처사에 연창은, 검의 줄이 느러져, 저만 날니는 지라, 마  
 극이, 울투와, 전일 스를, 리야기 하며

이 흔 곳을 보면, 다른 곳을 짐작하리라, 그러나, 데일 조심되노는, 이중양의 잇는  
 일구가, 지극 엄밀하야, 타구에 비하지 못하니 만일 조금 만 실수하야 할정에 싸지면

우리 량인의, 슈치되고, 장슈촌의 불행이 막심할지라, 너의 향은 가지고 온, 폭발  
 약을 노아, 중앙구의, 벽을 썩치면, 비단 압길은, 엇을 썩아니라, 혹더속에, 예비흔  
 것이 잇셔도, 한번 놀나면, 것히 들어나, 리니 폭발약을 노츠

향고 량인이, 셔로 가며 말하다가, 중앙구에 니르러, 벽밋을 파고, 약을 세을석, 벽니  
 단사하야, 줄연치안은 지라, 량인이, 평성 힘을 다하야, 쇠맛치로 벽밋들을 조아, 겨  
 오름을 니고, 다시 쇠지레로, 썩고니, 들덩이 부셔지고, 큰궁기나 거늘, 폭발약을 너  
 코, 오분시 간 썩탈, 화승을 달혀노코, 일마장을, 물너나오니

아니 속하야, 벽력치는 소리나며, 기와 장돌뭉치가, 반공에 소스, 급흔 소닉이 퍼붓듯,  
 스방팔면에, 석설과 모리가, 눈을 쓸슈, 업는 지라, 량인이, 슈시간에 소리긋치기를,  
 기다려, 츠츠나아가, 두루보나, 중앙구의, 벽이 반은 문허지고, 좌우 량에, 들썩,  
 도리, 기둥, 석가리, 가예서 쿵쿵, 데서 렬석, 위를 향야, 드러가지 못하고, 멀리서서  
 보논디, 세여진창호와, 부러진란간이, 흔곳도 성흔디 업서, 병화격근, 도성 갖흔지

라  
량인이, 이리더리, 숨허가며, 전일약한의, 슈월거천항든추형고, 제도실을 추져가  
니, 그곳을 가항야, 문에아모도업거늘, 량인이, 마음을노코, 무인디경갓치드러가  
니, 외촌부러이곳에 이르되, 사람의 종적은불슈업고, 혼구명에, 검정기, 지즈며썩  
리싸지개, 다다려느니라

마국이, 전일종괴수관, 그리던곳과, 섭념항든, 장서실을, 려々히차자보니, 모도저  
와면지가득항되, 슈습지안코, 추밀각으로갈시

(을투)여기도, 폭발약을, 노호라호오

며  
(마국)글세보아가며, 만일문이잇셔드러가면, 곳항여독흔슈단을, 부랄것업다,  
항며점々나아가, 전일약한이갓치이고, 두놈이직히든곳에 이르러, 마국이, 가르치

며  
더방이, 뒤속을썩이고

더나무가, 뒤목숨을살넛다

항며또흔곳을, 가르쳐

이리가면, 추밀각이요

더문을새트리고, 드러가면, 바로인비의사자방이, 머지안라

항고즉시독괴를, 드러문을치니, 쪽이갈너졌사나, 안쪽을곳게잡가, 발로츠며, 손  
으로밀되, 썩덱이업는지라

지암독괴를, 들어치려흔즈음에, 홀연멀니셔, 들니되,

누가여괴잇느냐, 누가여괴잇느냐

항는소리나거늘, 량인이, 삼작놀나며, 이뵈인접속에, 어인소리고, 항든츠에, 또들  
니되

누가왔느냐, 누가왔느냐

항니마국이, 대경항야이로되

내이촌에드러오며, 항사람도업기에, 항공디를점령항기, 무방항다항엿더니, 이  
곳에사람잇는줄을, 뒤알앗시리오, 이는임자잇는인가어늘, 담을넘고, 문을쇄치  
며, 벽을헐고, 집을문허스니, 곳천유항는, 도적이라

우리순슈환, 법국사람으로, 일이만인가에와셔, 천유항는악명을, 잇을지니, 에  
지붓그럽지, 안으리오

항며쥬저항더니, 문안의셔, 또누가여괴잇느냐, 항는소리, 점점갓가이들니거늘,  
마국이, 크게소리질으며

너는, 엿던사람이나, 쌀니인비다려, 나와보라항여라

하니 문안의셔, 빗장을 켜고, 열거늘, 자세보니, 오목눈에, 칼등코며, 곱솔슈엄에, 면상에 주근깨, 더덕더덕한, 디의라, 디의 마극을 보더니  
하, 약한이나, 약한이나

향면서, 황황한 거동이 어늘, 마극이, 불너 손짓하며

네 인비게 말하야라, 너더와 면질을 알이, 잇다 하야라

향족, 디의 도리질하며

나는, 주인의 명을 바다, 외인을 드리지 못하거늘, 네엇지, 법을 범하느냐

(마극) 그러면, 네가 나를 막아, 인비를, 못보게 할터이냐

(디의) 인비군, 인비군, 여괴업셔 여괴업셔

향면서, 눈을 희번덕이며, 가라하니

(마극) 인비가, 언제 갓시며, 언제 온다더냐

(디의) 약한아, 썬들지 말아, 나는 주인의 명으로, 이문을 직할뿐이 어늘, 네만일가

지안코, 짓거리면, 너흠은 주먹이라도, 네티같이, 식골박슬하듯, 하리라

이때, 을투가, 첫히셨다가, 분심이 대말하야, 마극

을보며, 이러케 할나 할 것이, 무어이오

향고, 또 디의를 보며

네가, 우리를 드러면, 드러가고, 안드리면, 우리 그저 같듯하냐

향면서, 문턱에 밧속닥어 서니, 별안간 문을 탁 닫는지라, 을투가 거오상하자 안코, 비

케셨다가, 분혼마음을 참지 못하냐, 엇지 할슈업셔문, 틈으로 본죽, 향놈이 크게

외이며, 나오니라, 나오니라

향더니, 홀연 머리우호로, 사람의 소리나 거늘, 급히보니, 아이밀이, 밧셔 스다리를

노코, 을너와, 너러다보는지라, 마극이 우시며

허, 아이밀이로구나, 너너를 알거이와, 이저너 다러여러, 말할것업고, 다만네가

이문을, 열겠느냐, 못열겠느냐,

말을 맞치지 못하야, 아이밀이, 탄자로 마극을 쏘거늘, 마극이, 급히 머리를 숙이나,

탄자가, 모자를 쏘코, 나가는지라, 이때 마극이, 폭발약을 터어, 불을 당겨던지니,

곳터지며, 벽이 문어지고, 스다리, 슈십보 밧게 썰러지거늘, 량인이, 각각 총을 가지

고, 달려가다보니, 피흘너쌍에 가득하되, 아이밀 디의는, 형적이 업는지라, 홀연 총

소리나더니, 마극의 등뒤에, 나무가지, 부러지거늘, 량인이, 서로보며

조심조심 향라

향며, 말나보니, 한셀기 나무, 잇거늘, 급히나무 밧히 몸을 감초코, 잇는디, 총소리연

향야, 나는지라, 량인이, 나무 밧히 잇서, 다형이상하지 아니향고, 마극이, 흔곳을 보

더니

이놈더괴있다. 더기있다. 네더괴연동에서, 무럭무럭나오는, 연기를보너나  
하고, 급히나무가지들, 썩거모자를쓰이고, 옷옷을입혀, 적인들의심케하고, 을투  
와, 탄자를연속하여, 노흐니, 총소리, 쏠치지아니하는디, 두놈이, 간디업시, 괴쳐  
이사라졌거늘, 마국이, 연동잇든, 근처로가더니, 크게불으며

이놈잡어라, 이놈잡어라

하니, 을투쫓쳐가본즉, 마국이, 디의와, 혼덩어리되야, 싸름하듯, 어우러졌거늘,  
을투의, 탄환소리나는곳에, 디의쌍의, 거구러지는지라

을투스면으로, 둘러보며, 또한놈은, 어디잇느냐

하니, 마국이, 숨이쳐서, 훌쩍훌쩍하며, 손으로가르치는곳에, 아이밀이, 담모둥이  
에, 쫓바졌거늘,

(을투) 저놈도, 탄자에마졌쇼

마국이, 고기만싹덕이거늘, 투갓가가보니, 과연죽엇더라

(마국) 인제는, 녀려업다

하고, 인비의, 솟자방으로갈식, 을투는, 처음보는터이라, 눈에현황하고, 가슴이  
두근거리, 그전약한이, 처음들어올적, 모양이라, 일실이실을, 차례로보다가, 제삼

실에이르니, 이곳은약한이, 인비와초면하든, 금박룩식으로, 꿈인집이라  
대리석고죽상에, 추형도식은, 간디업고, 각처전보신문서찰이, 산덤이갓치, 싸엿  
시니, 량인이, 서로보며

이상한다, 이상한다, 더신문서출던보는, 인비흔손으로, 썩혀보는것인디, 봉도  
썩혀지안코, 더디로쓰힌치, 잇시니, 괴상한다

하니, 혼곳에이르러

(마국) 니향자에, 이목상자속으로, 인비을싸라드러가, 별유천디를, 보았다  
하고, 목상자에, 각종서적을더, 쳐우고, 마국이혼자말로

어디름이잇는가, 어디로열던가

하니, 두루찾다가

오오, 인비의비밀을심스가, 덩녕변자하야, 남이모르게놓얏도다, 그러나필경드  
러가난, 문이잇시리니, 제가도망하야도이속에서, 승던입디는, 못하엿시리  
라

하니, 스면으로도라단이가, 골이나서, 발길로거더추며, 손으로썩밀며, 우직근우  
직근, 들부시더니, 을투가, 런장을쳐다보다가, 우연하도둑우에, 올라서서, 두손으  
로던등걸넌, 고리를잡아누구니, 고리축쳐지고, 가털로된든박휘갓치, 둥근털관이,

씩그를향더니, 런장이, 문갓치열녀지며, 강철스다리, 너러뇌이느니라, 량인이, 그 제야, 드러가는길을고, 허허우시며  
별놈도, 다보겟다

향고, 스다리로올나가니, 오심여총이라, 올라서며, 스면이공감하야, 지척을분간  
치못하고, 더듬더듬만져보며, 드러가니, 슈심여급위를도라, 향방을모로다가, 혼  
곳에, 흰무지키썩치듯, 일광이빛취거늘, 마극이달녀가보니, 혼즈남짓흔, 류리창  
이라창속을드러다보더니, 마극이손짓하며, 가만가만, 을투다려  
오니라, 오니라

하니, 이류리창은, 망원경과, 현미경갓치, 물건을보면, 갑절이나, 커브는철광경이  
라, 혼는류리라, 이세마극이눈이식로히, 썩굴듯굴, 가심이덜씩너려안져, 아모말도  
못하고, 다만손으로, 가라칠뿐이라, 을투1갓가히가, 엿보니엇던자가, 조희를퍼  
고붓대를잡아, 락연히안졌스니, 의곳렬세계의왕이오, 려렬촌의주인이오, 화학스  
인비라

량인이, 다시눈을씻스며, 조세히보니, 인비손의잡은붓싹을, 조희에더이고, 무엇을  
싱각는지, 무엇에놀났는지, 어딴를숨히는지, 붓을놀리지안코, 오도커니, 안져제용  
도갓고, 부쳐도갓고, 미력도가흐니, 더것이어인일인고, 세상이떠들며, 도망하얏

다는, 인비가더속에업데여, 더형상으로안진것을, 뉘알알시리오  
그쓰는것이, 무엇인고, 량인이, 류리경밖게서, 녀여보니, 연상우에, 조희이, 썩엿  
하더라

ABOD고시하노라, 장슈초철일은, 오날밤으로결명하얏시니, 본촌주의, 명을받  
은후에, 즉시거행하되, 괴어코, 오날명밤중에, 취도식도모르게, 장슈초이, 호읍  
복동하고, 일시함물하야, 옛날파비도부가, 복명하듯하게하되, 좌선마극의두죽  
억은, 완전흔신체로, 본촌에보디게하라, 너이두송장을보면, 지극히상쾌하고,  
질기겟스니, 책념함을, 바라노라

구월십칠일 인

인씩를겨오쓰고, 비씩는못다썼는데, 붓을멈쳐시니, 무슨사륙이며, 썩구월십칠일  
은, 정히도망하다는날인디, 이제흔달을, 더모양으로안졌시니, 어인일인고, 만심  
의혹하다가, 인비안진것히, 서여진, 조약돌류리썩각이, 량자하거늘, 마극이, 그제  
야, 세닷고

알패라, 알패라

대십오장 장슈초, 만세

좌선군이, 마극과을투를보디고, 종일마음의현현하야, 집안으로도라단이며, 좌불

안색하야, 문밖계방울소리만나도, 오는가, 굵소리만나도, 오는가, 문을펼쳐여다 드며, 또넘려하되

인비악독하야, 이두스름을, 만일불형케하면, 저의독화도, 찰혹하러니와, 장슈 초심만인중이, 위티홀지로도, 또싱각에는, 인비아모리음홀하야도, 마극의지략 이상적하고, 을투가년쇼하나, 너너이협력하리니, 혹두사름이, 다무사히, 도라 오는가

하야, 심신이비일하더니, 홀연, 시즈가엿조오되

마극을투두선성이, 오느이다

하니, 죄선이, 새차놀나며

오다니, 모다니, 발셔오느나

하고, 뛰여나가, 홀손으로, 마극을붓들고, 또한손으로, 을투를붓드러, 안진후에

(죄선) 다른말다젓치고, 우선인비의정형을듯세

(마극) 넘어마시오, 렬렬초이발셔이발세망하고, 인비는죽었느이다  
죄선이, 일변놀나며, 일변기거하야, 하느말이

인비가죽다니, 인비가죽다니, 엇더케알었노

(마극) 우리들이, 분명히보았쇼

하며, 을투를보고

니자세히, 전후말을다하러니와, 혹짜지거든, 즈네가채워말하계

하며, 처음꼭발야노아, 중앙구에드러가든말과, 추밀각에드러가, 목상조문을, 찻지못하고, 강렬렬관을깨트리던말과, 류리창으로, 인비의, 형상을보던말을, 낫낫치고하고, 마극이, 또말하되

전일, 그티포탄환을, 자세히리야기하엿거니와, 인비의말이, 유동탄산을, 탄환속에넣는다하더니, 웃지하야, 탄산이터졌는지, 쏘다졌는지, 핑창하야, 붕괴와상박하고로, 왜스가빙설가하야, 저흔조얼어죽고, 우리만일, 그방속에드러가, 어리디엿든들, 저를싸라, 빙곡에못칠번, 놓앗느이다

을투—또디의와아이밀을맛나, 일장싸호던일을, 말하며

필경그놈들이, 인비의죽음을인하야, 렬렬초의주인이되고저, 홀인듯하오

(마극) 그런것이안이지, 나는렬렬초니용을, 자세알거니와, 인비의틀령이, 엇지엿밀할지, 아모리친신하차라도, 인비의불음이, 엿시면, 감히인비잇는처소에, 갓가히가지못하느고로, 그두놈도, 인비의스실을, 모르고, 틀령을적하노라고, 의인을방어할일이니라

하니, 죄선이손바닥을치며



하날이로고, 그디두사람살어온것도, 하날이요, 인비평심 제지쇼만맛고, 남의인  
종을, 멸망하랴다가, 저먼저, 제몸을죽였시니, 하날이로다

나논이제히엇시니, 그디량소년은, 이를거울을지여다, 그러는, 우리장슈촌의번  
성함과, 우리장슈촌의천의함을, 니흔번하례하지아니치, 못하노라

우리장슈촌, 만세

우리장슈촌, 만만세

우리나 전인종만세

우리나 전인종만만세

과학(科學) 소설(小說) 렬 세계(鐵世界) 終

清國 梁啓超 原著 韓國 李輔相譯述

教育 小說

# 伊太利少年

表紙石版畫印刷

全一冊正價廿錢

本小説은伊太利一工人의子馬克少年의數萬里海陸을跋涉하여尋親한事蹟  
을著述한者나原來其母는海外異域에作客하여踪跡을失한바壯哉라馬克이  
十三歲小兒의單身隻影으로風霜의艱難과猛獸의危險을冒하고沙漠의野와  
深林의間에奔馳하여亞美利加大陸을遍踏하다가竟乃他苦孟의寄跡한病母  
를尋하야母子가團變을得하얏스니嗚呼美哉라馬克母子의慈孝함이여수에  
此를述하야我少年諸君에介紹코자하노라

發行元

△皇城中部罷朝橋越邊

中央書館

菊初先生 李人植氏 著

家庭  
小說  
鬼  
의  
聲

表紙石版寫眞

全上下編

正價 金六十錢

本小説은著者가我韓家庭社會의風化腐敗함을痛戒하야一部諷刺的小說로主人公金承旨夫人을假托하야其小室姜娘子其夫人의忌妬惡行으로凶婢의手에暗殺을遭함과其夫人及兇僕이姜娘子父에게復讐의慘殃을反受하든事實을詳細著述하야妻有卜妾의男子와嫉妬惡習의婦人과賴德招婿의愚父와貪財殺人의奸婢을一體警戒함이오其悲憤壯快한全篇趣意가可使讀者로愛憐의悲淚를自流케하며稱快의叫聲을不覺케하지니讀者諸君은必試一讀하시와家庭裡面의鄙風敗俗을鑑戒할지어다

發行元 皇城中部罷朝橋越邊 中央書館  
分售處 京鄉各有名 特約書店

1908  
隆熙二年十一月十二日印刷  
隆熙二年十一月二十日發行

鐵世界全一冊  
正價二十五錢

譯述者 李海朝

發行者 皇城南部大廣橋 高裕相

京城明治町三丁目

印刷所 日韓印刷株式會社

皇城南部大廣橋三十七統四戶

發行元 滙東書館



不許  
複製

